간화선의 진수, 세계 석학들과 나눈다

동국대, 제4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 개최
6월 23~30일, 동국대와 인제 백담사서

세계 석학들과 함께 간화선의 진수를 논하는 대규모 법석이 열린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종호)와 동국대 국제선센터(센터장 수불)는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7박8일에 걸쳐 동국대 서울캠퍼스 및 인제 백담사에서 '제4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2012년 제3회 대회에 이어 4년 만에 열려 간화선을 공부하는 많은 불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화선, 마음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간화선과 관련된 다양한 논문들이 소개된다. 대회 기간 동안 △프랑스-선과 위빠사나(마틴 버첼러) △일본-대혜종고와 간화선(이시이 슈도) △미국-교리 실현으로써의 화두수행(지미 유) △중국-'간화선의 연원에 대한 고찰(서문명)' '본환장로의 간화선에 대한 평론(이사룡)' '지눌과 보우의 간화선에 대한 고찰(이해도)' △한국-'간화선과 천태지관(혜명스님)' '대혜종고의 전후제단에 관한 一考(형운 스님)' '마조도일과 간화선의 선법사상 비교(현견 스님)' '조선후기 산화선의 재해석(김성욱)' '〈서장〉과 〈선요〉를 통해본 간화선(황금연)' '참여불교의 길로써 화두에 대한 고찰(류제동)' '간화선, 마음을 밝히는 몸의 철학(원혜영)' 등의 글이 발표된다.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는 그동안 학술발표와 집중수행, 스님들과의 대담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이는 학문과 실천수행, 점검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방식이다. 교학 혹은 수행이라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간화선 접근방법을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견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는 이와 더불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간화선법과 수불 스님의 간화선법, 일본 임제종의 야스나가 소도 스님의 일본 간화선 수행법 등에 대한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동국대는 이 자리가 간화선 수행법의 요체를 확인하고, 이에 관한 심도 있는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이론과 수행방법을 함께 탐구하는 실천적 학문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대회에 이어 국외학자 및 외국인 40여 명이 백담사에서 5박6일 일정으로 간화선 실참 수행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간화선 실참 후에는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이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한국 정통 간화선의 면모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종학연구소장 종호 스님은 "학술발표와 간화선 실참, 선사 참문으로 이어지는 이번 대회는 간화선 이론의 교학적 연구는 물론 외국 수행자들에게 실제적인 간화선 수행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국 간화선의 세계화와 대중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사회 불평등 속 불교, 무엇을 해야하는가

불교사회硏, 6월 15일 '한국사회 불평등과 종교 역할' 세미나

청년실업, 빈곤,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암울한 현실에 대해 종교계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리가 열린다.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 이하 불사연)는 6월 15일 오후 2시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기조강연은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한국사회 불평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불평등 한국의 현황과 원인' 주제 발제가 진행되며,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 윤성식 고려대 교수 · 양한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불사연 측은 "'고용 없는 저성장'이란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는 갈등과 대립이 아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선진국 진입의 교두교로 삼아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진단하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법회 감동 위해서는 그림 · 영상 활용해야"

백도수 교수 불광연구원 봉축학술연찬회서 주장

"그림과 스토리, 영상 만큼 대중이나 청자를 쉽게 이해시키는 수단은 없다. 기존 법어 위주의 설법에서 그림과 행위, 영상 등을 넘나드는 새로운 설법이 시도돼야 한다."

불광연구원이 6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감동적 법회를 위한 설법의 구성과 내용' 봉축 학술연찬회에서 새로운 설법방식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효과적 메시지 전달과 청중의 몰입을 위한 설법방법론'에서 "청자가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청자의 문제가 아닌 화자의 문제"라며 "불교경전을 깊이 들여다보면 경전 글귀 뿐만 아니라 부처가 앉는 모습, 비구들이 기뻐하는 모습 등을 머릿속 그림으로 연상하게 하고 있다. 대만과 일본 등에서는 이를 활용해 다양한 애니메이션과 미디어 자료 등으로 설법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백 교수는 이어 "청중들의 설법 몰입을 위해 설법시 시선접촉이나, 표정, 외모, 몸짓에도 주의하고 개방형 질문으로 설법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영욱 한국스피치&리더십센터 원장은 "스님들도 설법을 위한 스피치 훈련을 해야 한다"며 "사회에서는 청중을 파악하고 스팟, 아이스브레이킹 등 다양한 기법으로 주의를 집중시킨다. 설법도 이런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서는 조준호 고려대 연구교수가 '부처님의 설법 원리와 방법-초기 경전을 중심으로', 남수영 동국대 외래교수가 '대승경전에 나타난 설법의 내용과 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의상대사 창건 관악사, 복원된다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전통사찰 관악사가 복원된다.

과천 연주암(주지 탄무)은 최근 보건불사를 진행해 과천시의회 추경 예산 편성을 비롯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불사계획에 따르면 관악사는 연면적 333.5㎡에 승방과 누각, 공양간 등 건물 4동을 갖출 예정이다.

관악사는 통일신라 초기인 677년 의상 대사가 창건했으며 조선 태조 이성계가 중창했다. 효령대군이 관악사를 지금의 연주암이 있는 자리로 위치를 옮겼다. 1994년 문화유적 지표조사에 이어 2000년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됐으며 2003년 경기도 기념물 제190호로 지정됐다. 2015년 5월 14일~9월 25일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제2차 유적 발굴조사를 실시, 청동숟가락과 철제 방탄모 등 1446건이 출토됐으며 경기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관악사 복원이 승인됐다.

관악사 복원공사에는 25억8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연주암 측은 허가절차가 마무리되면 7월경 첫 삽을 뜨고 내년 10월 경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국화향 짙은 2호선 구의역…
"나무아미타불" 염불 소리만

6월 3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는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서 참혹하게 죽어간 19살 청년 김모 씨를 추모하는 기도회를 봉행했다. 혜등 · 법상 · 우담 · 고금 스님 등 사회노동위원 스님들은 슬프고도 단단한 염불소리로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스님들의 염불소리에 지나가는 행인들도 발길을 멈추고 국화 한 송이를 스크린도어 옆에 가만히 두었다.

박아름 기자

출가 동영상 공모전 대상 정은혜 씨 선정

취준생·PD 등 다양한 계층서 작품 58편 응모해 '문전성시'
15일 시사회 및 시상식 개최

출가 진흥을 위한 동영상 공모전 대상으로 정은혜 씨(데일리TV 사원)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한 출가'가 선정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6월 3일 '출가 동영상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대상(상금 500만원)으로는 정은혜 씨(데일리TV 사원)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한 출가'가 이름을 올렸다. 정 씨는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해 "인간이 겪어야 하는 생로병사를 극복하는 방법이 출가라는 것"을 보여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상금 300만원)에는 조동성 씨(주식회사 크리에이티브 이스트 PD)의 '출가'로 "출가수행자의 정신은 끝없는 이타행"을 주제로 담았다.



조계종 교육원이 주최한 출가 동영상 공모전 대상 수상작인 정은혜 씨의 작품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한 출가'의 한 장면.

장려상(상금 100만원)에는 △팀 필르밍(공지혜, 유솔범, 김오륜)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여정, 출가' △진혜리 씨(취업준비생)의 '자유를 향한 날개짓, 출가' △이종민 씨(작곡가)의 '출가의 길'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수준 높은 15개 작품에 대해서는 가작(상금 20만원)으로 선정키로 했다.

지난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진행한 '출가 동영상 공모전'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전문직 종사자, 현재 행자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까지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58편의 작품을 응시해 눈길을 끌었다.

당선된 수상작들은 6월 15일 오전 11시 국제회의장에 시상식 및 시사회를 가지며, 추후 방송, 인터넷,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 등에 적극적으로 출가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폭 넓게 참가한 이번 출가동영상공모전이 '출가'라는 개념을 좀 더 일상에 가까운 곳으로 다가오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김상규 감사위원, 신임 공불련 회장에

6월 4일, 대의원총회서 선출



김상규 감사원 감사위원〈사진〉이 신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이하 공불련)에 선출됐다.

공불련은 6월 4일 보은 법주사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8~9대 김상인 회장 후임에 김상규 감사위원을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회장 임기는 본래 2년이지만 김상규 신임회장은 내년 10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공불련은 지난해 10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김상인 9대 회장이 그동안 회장직을 맡아왔다.

김상규 신임회장은 1961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 마산고등학교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 재정업무관리관을 거쳐 2014년 제32대 조달청 청장으로 취임했다. 이어 지난 2월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김 회장은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와 버밍엄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윤호섭 기자

제1차 평온 공개강좌



이 세상에서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이 시대의 현성공안 만을
선정하여 라이브로 공개강좌하다

암(癌)은 깨달음과 무슨 관계인가?

• 제1차 공개강좌 일시 : 2016년 6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5시(2시간)
• 공 개 강 좌 장 소 : 화엄경 강원
• 참석대상 및 참가비 : 누구나, 선착순 30명 제한, 참가비 무료
(예약 접수하신 분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신청 및 문의 : 1899-9532

평온센터 부설
화엄경 강원
방장 진귀

